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 총 13팀 각각 800만원 과업 수행비·전문가 자문 등 지원

전북도가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응원에 나선다.

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종 13팀을 선발하고, 5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팀당 800만원의 과업 수행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이날 발대식은 1부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 인사말과 지정서 수여 및 2부 사업 운영방향 안내와 보조금시스템 교육, 그리고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발대식에는 행정안전부 정선용 지역혁신정책관이 참석해 전북 청년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행정부 우수상을 수상한 무주 산골농부 팀도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청년공동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들의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조금 시스템 전문 강사로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해 청년공동체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정된 13팀은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펼쳐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 마련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공동체들의 활동 거점지역이 어느 한 곳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별 안배를 고려해 선발된 13팀은 ▲미디어(아카이브) ▲커뮤니티 ▲교육 ▲문화예술 ▲다문화 등 다방면에서 각자의 재능을 살려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청년공동체 활동을 돕기 위해 팀당 8백만 원의 과업 수행비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체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기울인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 만큼 본 사업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특별한 관광지 담은 짧은 영상 '전 세계로'

전북도·14개 시·군, 특별한 관광지 홍보 위한 협약 체결
특별한 관광지 56선 소재로 짧은 영상 제작...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와 14개 시·군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공동협력마케팅 사업으로 '전북 특별한 관광지 56선' 짧은 영상 콘텐츠(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일상 속 코로나(위드코로나) 전북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

홍보마케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전북 특별한 관광지 56선'을 소재로 14개 시·군의 대표 짧은 영상 홍보물을 한국어와 외국어 영상(영어, 중국어 자막)으로 제작한다.

이후 멕시코, 미국, 동남아, 중국, 대만 등 주요 행사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말에는 대만 방송매체(추후 선정)로 송출해 '23년 상반기 대만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 관광시장 재개에 대응해 사회관계망(SNS) 등에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자연 속 치유(힐링)여행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할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북 관광 영상을 쉽게 검색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에 5개 마을 선정

농업·농촌 환경보전 실천 위해... 마을당 5년간 1억5000만원 지원
농업환경보전 인식 개선·생물다양성 증대·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도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에 5개 마을이 선정돼 향후 5년간 750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익산시 화산, 관원·원태·노동마을(2개 마을)과 순창군 수양, 덕천마을(2개 마을), 부안군 산월·1운산마을(1개마을)이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농식품부가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주

민 20명 이상 참여해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농업·농촌 환경보전 실천을 통해 농업인과 주민들의 농업·농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사업이다.마을은 올해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활동 계획과 성과 측정을 지원하는 현장지원조직을 선정해 마을의 특성에 맞는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향후 5년간 마을은 참여 주민들과 함께, 개인활동과 공동활동을 통해 농경지의 토양을 살리고, 다양한 생

물이 서식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등 개인활동은 완료성비료 사용하기, 농업부산물 잘라 논·밭 환원하기, 휴경기 녹비작물 재배하기, 경사지 밭 끝에 초생대·침사구 설치하기 등이 있으며, 이를 실천한 농업인에게 개인활동비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 공동활동은 오염원 하천·저수지 청소, 생태계 유해생물 제거, 영농·생활 폐기물 공동 수거 및 분리배출, 동벌조성 등이 있으며, 마을의 전통문화·농업의례 등 농업유산 보전 등이 있다. /유호상 기자

도·전북대, 수목 진료 협약 체결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허태영)와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센터장 한상섭)는 5일 나무병원 운영 등 수목 진료 분야 도민 행정서비스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파트·학교·공공기관 등 생활권 주변 수목에 대한 병해충의 진단·치료 등 수목 진료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수목 진료 분야 도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수목 병해충 진

단·분석 등의 수목 진료체계 공동 구축, ▲수목 진료 분야 연구·개발·교육 등에 필요한 학술·기술 정보의 교류, ▲수목 진단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수목 진단 매뉴얼 및 관리시스템 공동 개발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환경연구소 '공립나무병원'에서 추진하는 '수목병해충 방제 연구'와 수목진단센터에서 추진하는 '전국 교약병 발생 실태조사' 등 연구과제에도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메타버스 선도 도시, 전주' 위한 국비 사업 적극 추진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문화재 등 명인들의 삶을 통한 온고지신 메타버스 국가무형문화재 활동 공간과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전주 농생명 산업 종합 메타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전주의 농생명 산업 홍보 및 국제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해 전주 생산 농생명 상품의 종합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마트 팜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운동의 추진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 선도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지역 대학을 활용한 청년 메타버스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내놔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따라 메타버스와 융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주경제를 키우기 위해 가상현실 선도 및 가상경제 활성화 등은 물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는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교육불균형 해소·탄탄한 인프라 제공'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제학교와 교육프로그램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청과 인터넷수능 방송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5일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불균형 해소'하고 '탄탄한 교육인프라를 제공'해 전주에 머물면서 인재를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글로벌 영어 센터 설치 ▲국제학교와 교육프로그램 교류 ▲맞벌이 가정 자녀돌봄 지자체 통합 ▲전주이전 공기업과 학생교류 확대 ▲꿈키움 상담센터 확대 ▲강남구청과 인터넷수능 방송 공동이용협약 등을 제시했다. 또 학습바우처와 관련된 ▲인터넷강의 바우처 및 학원바우처 제공 ▲열린 교육학습 바우처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영어센터를 설치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양질의 영어교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해 학력신장은 물론 교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움의 의미가 있는 곳에 기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친절하고 세심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열린 교육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터넷강의 바우처는 물론 학원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더

해 꿈키움 상담센터의 진로상담, 학습상담 입시상담도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주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과 지역학생간 교류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음악, 춤, 영화, 비보이 등 학교 밖 예술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전주문화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맞춤형이 가정을 위해 지자체 간 돌봄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돌봄센터를 확장해 야간돌봄과 주말돌봄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후보는 '전주발전 최고의 경쟁력'은 결국 '인재'라면서 "전주가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 대학양육 등과 협력해 전주사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청을 창업밸리로 조성'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유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규제 개선부터 시작된다"면서 "기업인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할

유창희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완산구청을 창업밸리로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자원을 통해 창업·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앞서 공약했던 전주 시 청사를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완산구청을 전주시청사로 이전한 뒤 완산구청에 창업기업 30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전주에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 유망한 강소기업이 넘쳐 나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약점을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등 스타트업을 키우는 전북대, 전주대와 함께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유니콘 기업을 만들인 역학을 해왔다.

기업규제 개선 등 기업지원에 대한

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는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단을 설립해 핵심규제를 선정,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지속적인 기업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인 지원 전담 창구 개설과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지원 및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화단 운영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기업경영 여건이 불리한 전주에 창업바람을 일으키고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1면에 이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균형적인 지방발전 차원에서 이번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는 반드시 익산시에 유치해야 한다는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그간 도와 익산시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국회 등을 수십차례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 예산확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행정(도·익산시·교육청), 정치권,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해 홍보활동과 업무지원·협약 등을 추진하고, 지난 3월 23일에는 민관

협의회와 도의회가 한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익산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청소년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청소년을 치료하고 보살필 수 있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 확충이나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익산시가 힘을 한쳐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불법 산림훼손지 적발

산지관리법 위반 11곳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 훼손지 11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실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100개소를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창고 및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농경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설치, 무단 입목 벌채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향후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으로,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토록 촉려 예정이다.

정화영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산림 개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림생태계 및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063-280-380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희망저축계좌 1·2

통장사업 오늘부터 신규모집

전북도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2 통장사업'을 6일부터 신규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80%이상인 가구(4인가구 기준 122만9000원)이며, 3년간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탈수급 시 매월 3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4인가구 기준 256만 원)이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시 매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go.kr)에 접속해 통장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